

地域發展을 위한 成長極과 成長據點

金炯國

(環境大學院 講師)

目 次

- I. 머릿말
- II. 成長極과 成長據點
 - 1. 成長極이론에 대한 省察
 - 2. 成長據點이론의 전개
- III. 지역발전을 위한 성장거점정책
 - 1. 지역정책수단으로서의 성장거점
 - 2. 성장거점과 工業複合地, 中心地 및 新都市
 - 3. 성장거점정책의 전개
 - 4. 성장거점정책의 事例와 經驗
- IV. 結論——새로운 研究課題

I. 머 릿 말

政策指向의 학문인 地域계획론은 適實한 일련의 政策手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狀況에서 成長極(Growth poles)과 成長據點(Growth centers)의 개념은 지역개발에 종사하는 이론가와 실무자들로부터 커다란 관심을 받아왔다. 소득과 福祉面에서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성장극 혹은 성장거점이란 공간적인 정책수단은 热狂裡에 다수의 나라에서 실제적으로 적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로 한 脚光에도 불구하고 成長極과 成長據點의 두 개념은 많은 混同을 慧起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行政實務에서는 地域의 據點開發이라 하여 地方事業을 重點的으로 내지 集中的으로 施行한다는 뜻으로 다분히 모호하면서 不正確하게 쓰여지고 있다. 또한 이 方面의 外國 研究文獻에는 비슷한 類의 新種用語가 量產⁽¹⁾되고 있다. 그 결과로 이들 用語가

(1) 성장극과 성장거점은 달리 發展極과 發展據點으로 불리고 있다. 학자들에 따라서 성장극과 성

指揮하는 지역 발전의 측면은 실로 천차만별인 형편이다.

이글의 목적은 주로 외국에서 전개되어온 성장국과 성장지역에 대한 全般的인 理論水準을 종합하면서 이들 이론의 分析的 一貫性과 현실에의 政策的 適實性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II. 成長極과 成長據點

1. 成長極이론에 대한 省察

空間經濟學의 巨大한 두개의 학문적 조류가 있다. 하나는 Walter Christaller와 August Lösch가 대표하는 獨逸學派의 中心地理論(Central place theory)이고 또 하나는 경제발전의 空間的 分極현상을 논의한 F. Perroux 와 그의 後學에 의한 「프랑스-벨지움」學派의 成長極이론이다.⁽²⁾ 중심지이론은 상업적 도시기능에서 본 도시의 크기와 지리적 배치를 설명하는 靜態的 이론인데 반해, 성장국이론은 공간상의 발전을 動態的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을 정책적으로 전개하는데 중심지이론보다 現實的으로 適實한 이론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성장국의 論議은 Francois Perroux(1955)에 의해 시발되었다. Perroux에 의하면 경제성장은 “힘의 場”(a field of forces)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는 발전의 遠心力이 極이나 焦點으로부터 방사될 뿐만 아니라 極으로 발전의 求心力이 모여드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여기에 極이나 焦點이라 함은 대체로 企業體나 工業, 혹은 一群의 企業體나 工業을 뜻한다.

Perroux의 이와같은 發想은 Schumpeter 學說에다 企業體間의 기능적 상관성(Functional interdependence)에 대한 經驗的 관찰을 통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Schumpeter의 論理에 따를다면 경제발전은 연속적인 刷新의 발생과정인 바 수요의 所得彈力系數가 높은 새로운 製品의 生産은 그 以前의 生產品을 대체하게 된다. 이에 따라 舊製品에 연관되어 있던 소기업체들로 하여금 새로운 생산적 적응을 촉구하게 되어 이른바 前方 및 後方波及效果⁽³⁾를 발생시

주 거점을 지칭하면서도 軸(Axes), 群集(Clusters), 帶狀地域(Belts), 結節(nodes) 등의 用語를 쓰기도 한다. 또한 성장거점을 국가적, 지역적, 지방적 수준으로 구별하여 성장국(Growth poles), 성장지역(Growth areas), 성장점(Growth point)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그러나 論議에 주요성을 가지는 개념분류는 성장국과 성장거점이다.兩者를 區別 할 때 한편에서는 성장국은 ① 기업, 성장거점은 도시로 이해하는가하면, 또 한편에서는 전통적인 성장국의 개념을 탈피하 ② 지역경제의 중심도시임에는 차이가 없으나 다만 성장국은 국가적 수준에서본 지역경제의 중심인 대도시로, 성장거점은 성장국보다는 규모가 작고 지역경제의 영향력이 작은 도시로 해한다. 필자는 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방면의 새로운 중요문헌들이 전자 ③ 같은 개념분류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Darwent(1969)와 Hansen(1972)

(2) 分極이라는 개념은 物理學에서 도입된 것이다. 어떤 物質이 있는데 이 物質의 한 次元의 屬性이 다른 次元의 속성과 달라지고 있을때 이 物質이 分極된다고 말한다.

(3) 이 개념들은 Hirschman(1958)에 의해 쓰여진 것이다. 한 企業體에 原料나 중간생산물을 제공 ④으로서 그기업체와의 기능적 관련을 맺는 효과를 後方波及效果, 기업체의 제품이 다른 기

친다. 이 과정의 餘波로 종래에 경제부문간의 靜態的 均衡은 累積的逸脫현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후자의 현상을 특히 分極현상이라 일컫는다.

성장국의 이론에서 성장국이라함은 바로 경제발전의 분극현상을 主導하는 大企業을 지칭한다. 그 理由는 대기업의 거대한 기업적 바탕이라야 생산적인 쇄신을 많이 创出할 수 있을 뿐 아니라 之히, 그리고 광범위하게 관련 생산업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업을 특별히 「發展推進的企業」(Propulsive industries)이라 부르기도 한다. 발전추진적 기업은 具體的으로 ① 다수의 他企業體와의 高度의 相互作用性, ② 他企業에 대한 高度의 優越性, ③ 규모의 巨大性을 그 특징으로 한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Perroux의 성장국 이론의 骨格은 1954년에 발표된 Tibor Scitovsky (1954)의 外部經濟의 두개의 概念과 유사하다. Scitovsky는 外部經濟의 屬性을 ① 技術的 外部經濟(Technological external economies)와 ② 金錢的 外部經濟(Pecuniary external economies)로 나눈다. 前者는 기업체의 產出은 기업체 자체의 要素配合뿐 아니라 타기업체의 산출과 요소배합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을 가르키며, 後者는 한기업체의 산출은 타기업의 제반활동과 措置에 따라 달라짐을 의미한다 (Darwent, 1969).

그러나 Perroux의 성장국이론은 많은 理論上의 문제를 안고 있다. 중요문제중의 하나는 성장국이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力場인 경제적 공간에 자리잡는다 할때 「경제적 공간」의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疑問이다. Perroux가 定義한 경제적 공간은 성장국에서 발생한 일정한 크기의 힘의 어떤 方向으로 나아가는 變位(Vector)의場合인 극히 추상적 수준에서의 경제기능공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제적 공간은 지리적 공간과는 그 의미의 微妙性에서 서로 다른 개념이다.

성장국의 本·전효과과급이 경제적 공간과 지리적 공간에서 그 의미를 서로 달리하는 바를 Paelinck의 模型에 따라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Darwent, 1969).

- ① 하나의 성장국이 地域內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당해 지역에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 ② 하나의 성장국이 地域上에 자리잡고 있으면서도 당해 지역에 경제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 ③ 하나의 성장국이 地域上에 자리잡고 있지 않으면서도 당해 지역에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 ④ 하나의 성장국이 地域內에 자리잡고 있지 않을뿐 아니라 당해 지역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위에 나열한 네가지 경우에 특히 ②와 ③의 경우는 비록 경제적 공간에서는 성장국이지만 지리적 공간에서는 성장국이 아니며 다만 ①의 경우만이 지리적 차원과 경제적 차원이 合致

업체의 生산활동에 이용되는 효과를 前方波及效果라 한다. Hirschman(1958) 참조.

하는 공간위에 존재하는 성장극이다. 이런 論議에서 도출된 결론은 Perroux 類의 경제적 공간상의 성장극을 지리적 공간상의 성장극으로 동일시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위에서 논의한 문제와 관련하여 성장극이론의 커다란 이론적 한계는 특정의 발전추진적 기업이나 산업이 지리적 공간상의 어디에 왜 立地하는가, 그리고 특정장소에 그런 발전추진적 기법을 가지게 됨으로서 발생할 결과에 대해서 하등의 설명이 없다. 예컨대 불란서의 「르노」(Renault)자동차공장이 다른 관련업체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성장극임을 Perroux의 이론을 빌려서 설명할 수 있지만 왜 그것이 하필 「파리」에 자리잡게 되었는가는 그의 이론에 의해 설명되지 못한다.

2. 成長據點이론의 전개

성장극의 이론이 지리적 공간상에서 발생하는 경제발전을 다루지 못한다는 학문적省察은 새로운 개념의 구성을 요청한다. 이 개념이 바로 성장거점이다. 이는 지리적 공간상에서 발전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立地를 뜻한다. 성장극과 다른바는 성장극이 경제공간상의 기업이나 산업을 가르킨다면 성장거점은 지리공간상의 成長的立地, 즉 도시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축적되어온 이 방면의 이론적 수준에서 볼때 성장극의 立地가 바로 성장거점이라 생각된다면 논리전개상의 지나친 비약이다. 다시 말해 성장극(발전추진적 기업)의 適正立地는 종의 立地論에 의거하여 규명될 수 있으며 성장극이 타기업에 미친 성장효과는 投入一產出의 「메이트릭스」(Matrix) 즉 「레온티에프」(Leontief) 類의 投入一產出分析方法으로 확인할수 있다. 그러나 성장거점이 전제로 하는, 발전추진적 기업이 同系列 기업체와 그 工程과 함께 특정장소에 집적되어 있음으로해서 발생하는 集積利益을 고려하지 못한다.

전통적인 입지론의 方法論上의 한계를 극복하여 원료획득과 제품판매상의 교통비문제뿐 아니라 그 기업이 가지는 잇점인 規模經濟(Scale economies)와 同系列의 기업의 집적됨으로해서 발생하는 집적이익을 종합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工業複合分析」(Industrial complex analysis)이 Isard 와 Schooler(1959)에 의해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 接近方法 역시 집적이익 가운데 同系列의 기업이나 工程이 집적됨으로 해서 생겨나는 定着化利益(Localization economies)만을 설명할 뿐이지, 성장거점에서 찾아볼 수 있는 또 다른 집적이익인 都市化利益(Urbanization economies)을 看過하고 있다. 성장거점에서 발견되는 도시화이익이라함은 他種의 기업과의 機能的紐帶와 함께 도시의 풍부한 經濟・社會間接資本을 용이하게 이용함으로서 생겨나는 이익을 뜻한다.

그래서 성장극(발전추진적 기업)의 分極效果와 함께 立地의 集積效果를 설명할려는 성장거점이론의 주요관심은 아직도 이론적 進展을 크게 이룩하지 못했고 경험적 檢證을 결여하고 있다. 이런 弱點에도 불구하고 성장거점에 의해 落後地域에 경제・사회적 발전을 유발하고 泛及시키려는데 대한 대단한 直感의 학문열의가 있다.

성장거점이론의 전개는 여러 학자들의 주목할만한 논의에서 그始源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Boudeville(1968)은 기업의 분극적 성장과 함께 지역발전의 분극적 현상을 확인하였다. 즉 地域化(Regionalization)를 세 가지 類型으로 분류하였던 바 同質地域(Homogeneous region), 分極地域(Polarized region) 그리고 計劃地域(Planning or programming region)의 구분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분극지역이라 함은 재화와 용역의 흐름과 유대가 특정 지역을 지배하는 中心點을 향해 일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리적 공간의集合을 의미한다. 따라서 분극지역은 어떤 크기로서나 존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의 작은 지역과 기능적으로 분극화되어 있는 작은 중심지는 상위의 큰지역내에 통합된다. 도시 계층의 구성면에서 중심지이론(Central place theory)과 유사하다.

Hirschman(1958)과 Myrdal(1957) 역시 성장거점이론에 중대한 기여를 하였다. 그들은 서로 각기 달리 한지역(Hirschman에 의하면 北地域)이 성장거점으로서 分極(Polarization)과 漏滴(Trickle-down)의 두 과정에 의해 나머지 지역(南地域)을 영향미치거나 통제하게 되는 지역발전의 과정을 論及하였다. 분극과 누적과정은 각기 Myrdal의 逆浪效果(Backwash effects)와 波及效果(Spread effects)와 합치되는 개념들이다.

北地域이 南地域에 행사하는 분극효과는 후자의 不利를 초래하고 전자의 경제적 지위를 강화한다. 南地域의 기업은 심한 경쟁에 봉착하고 유망하고 젊은 교육받은 사람들은 北地域의 보다 나은 취업기회를 찾아 選別的 移動(Selective migration)을 하게 된다. 北地域의 기업은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零細한 南地域의 資本마저 차본투자의 기회가 유리한 北地域으로 이동하게 된다.

한편 北地域에서 南地域으로 향한 적극적인 漏滴효과는 北地域의 南地域 제품구매와 南地域의 투자를 증대하거나 南地域의 실업자를 흡수함으로서 南地域의 人當所得을 증대하는 것이다. 漏滴과 分極의 두 효과를 합산하면 北地域을 유리하게, 南地域을 불리하게 하는데 이런 불균형상태는 南地域의 落後가 北地域의 성장을 저해하거나 아니면 南地域이 정치적 조치를 추구하는 선까지 진행된다.⁽⁴⁾

Hirschman은 위에 적은 이론적 모형을 발전시켜 「통제된 불균형」(Controlled imbalance)에 의한 발전전략을 정립하고 있으며, 이런 불균형은 다양한 市場 및 非市場體系에 의해 고쳐질 수 있다고 문제하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의 전개에 있어서도 중심지(북지역)와 외곽지(남지역)와의 경제발전의 격차가 현지 할 때는 외곽지에 다 새로운 중심지를 설치함으로서, 결과적으로 또 하나의 공간적 불균형을 만들면서 지역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논리는 일련의 도시체계를 주변지역으로 점차 확대하는 것이 국가발전의 적정路線

(4) Hirschman과 Myrdal의 두對稱概念이 지리공간상에서 가지는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는 논문으로 Keeble(1967) 참조

이라는 黑點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정책결정자들이 알고자 하는 적정불균형의場合과 時期, 또 달리 적정 불균형이 언제 비능률적이 되는지에 대한 해답이 없다. 그래서 그의 이론은 각 책결정을 요하는 문제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없음이 중요 취약점으로 되어 있다 (Friedmann, 1966).

현재까지 지역발전론이 備蓄하고 있는 지역경제성장이론들⁽⁵⁾의 한계성을 지적하고 이문제를 극복하는 새로운 이론으로서 지역경제성장과정을 體系的이며 適實하게 설명할 수 있을뿐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낙후지역이나 문제지역을 개발하는데 準據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체계적인 것으로 생각되는 Friedmann의 中心—外廓地域模型(Center-periphery model, 1966)과 이를 다시 발전시킨 「分極的發展의 一般理論」(General theory of polarized development, 1969a)이 있다. 그는 먼저 발전은 공간상에서 同質的으로 無作為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분극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설명한다. 즉 경제발전은 「劃期的 刷新」(Kuznets, 1966)에 의해 비롯되는바 모든 인간활동이 「空間形成的」(Space-forming)이며 동시에 「空間誘發的」(Space-contingent)이라 한다면 划期的 刷新은 공간상에서 정착하기 마련이다. 지역공간상의 특정지점에 자리잡게되면 그 지점은 소위 先發利益(Initial advantages; Pred, 1966)을 확보하게 되고, 그 선발이익은 계속하여 立地的 慣性(Locational inertia)에 따라서 집적된다. 그 결과로, 일정 지역상에서 획기적 혁신을 확보한 지점은 中心地域(Center)이 되고 주변지역은 외곽지역(Periphery)으로 남아 중심지역의 영향과 통제를 받는다.

경험적으로 볼때 선발이익과 집적이익의 交互・相乘作用은 특히 발전도상국의 경우에 지역발전의 分極的 傾向을 심각히 加重시키고 있다. 이와같은 逸脫擴大(Deviation amplification) 현상은 亞歐의 경제이론의 균형모형(Equilibrium model)이라든지 사회과학에서 풍미하는 構造一機能論者가 論據하는 逸脫抵止體制(Deviation-counteracting systems)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도전을 Dahrendorf(1959)의 權威—從屬關係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地域的으로 수용하여 Friedmann는 발전의 地域定着정도에 따라 地域을 중심지역과 외곽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소신의 요람으로서의 중심지역은 획기적 혁신을 갖지못한 외곽지역을 지배하게 된다. 지배적으 중심지역과 피지배적인 외곽지역은 후자가 전자의 계속적 성장을 저속시킬 수 있게끔 예측화되는 비교적 안정된 공간체계를 형성하게 된다. 발전이 중심지역에 가속적으로 집중됨으로서 지역경제구조의 변화에 중요한 推進力이 되고, 외곽지역은 逆浪效果(Backwash effects), 특별히 위지는 餌還體系⁽⁶⁾에 의해 계속적으로 중심지역의 종속적인 市場, 供給源,

(5) 『亞洲經濟成長을 설명하는 세 가지 이론적主流에 대한 논문의 註解』는 金炳國(1973 b) 참조.

(6) 中心지역이 외곽지역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는 과정은 다음의 여섯가지 餌還效果(Feedback effects)에 의해 이루어진다. (가) 지배효과(Dominance effect)-자연자원과 人的 및 자본자원이

그리고 行政地域으로 전락한다. 이런 가운데 중심지역으로부터 발전의 刺戟이 비록 제한된 것이지만 외곽지역으로 波及되는데, 외곽지역의 노동력동원이라든지 혹은 종래의 공간체계의 統合에 도전할 수 있는 反「엘리뜨」의 형성이 그것이다.

기존의 공·나질서에 반발하는 외곽지역의 도전은 다음 네 가지 결과중의 하나로 귀착된다.

(1) 壓制(Uppression)—反「엘리뜨」가 권위적인 위치에 오를 수 있는 接近이 봉쇄된다.

(2) 中和(Neutralization)—既成의 권위는 외곽지역의 反「엘리뜨」가 제기한 새로운 創意를 수용하기는 하고 拒否하기도하면서 이 양자사이를 오간다. 그렇게하면서 그창의의 外樣的 要素를 채택하는듯 하면서 그창의가 노리는 效果를 中和시키려고 한다. 따라서 反「엘리뜨」가 권위에 완전히 接近할 수 없다.

(3) 融合(Cooption)—反「엘리뜨」는 기존의 권위체계에 흡인되고 그들이 주장하는 쇄신은 채택되지도 극히 한정된 형태와 규모에서 용납될 뿐이다. 그래서 그들은 기존의 권위를 행사하는데 확정된 범위에서 참가하나 그것은 그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는 정도에서 그친다.

(4) 代替(Replacement)—反「엘리뜨」가 기존의 권위를 완전 대체하는데 성공하고 그들 스스로가 권위를 확보하게 된다.

어떤 형태의 해결책이던 중심—외곽지역 간의 갈등해소는 결과적으로 발전과정에서 의미 있는 轉機가 된다. 이 갈등 해소는 계속적으로 逸脫擴大현상으로 귀착되든지 아니면 공간체계 안에서 逸脫 저지력이 출현하든지 한다. 이 두가지 代案은 단기적으로는 계속적인 성장을 가져다 주지만 前者의 대안인 逸脫擴大현상이 계속되는 경우는 「발전없는 성장」, 다시 말하면 構造의 變換없이 다만 공간체계의 한둘의 構成要素의 漸增的 확대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런 과정이 계속되면 전체 체제상의 總量的 富는 늘어날지 몰라도 종국에 가서는 국토의 효율적 이·나이라든지 사회·문화·정치적인 안정에 중대한 차질을 결과한다.

그러나 이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중요한 문제는 발전적인 공간체계에 있어서 기존의 권위—종속적 관계(중심지역 대 외곽지역과의 관계)의 전환점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전환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비용면에서 값비싼 과정임으로 해

중심지역으로 入超하기 때문에 외곽지역의 경제력이 약화된다. (나) 정보효과(Information effect)—중심지역의 인구, 생산 그리고 소득이 증대함으로서 동지역내에 고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며 그결과로 쇄신발생의 가능성성이 증대한다. (다) 심리효과(Psychological effect)—쇄신이 발생할 기회가 두드러지게 나타남으로 해서 다음에 다른 쇄신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무르익게 한다. (라) 근대화효과(Modernization effect)—발전적으로 대처 할수 있도록 급속한 사회변화에 기존의 사회가치, 형태, 기관이 적응한다. (마) 연관효과(Linkage effect)—새로운 서비스의 수요를 충족하고 그러한 서비스를 소비하는 市場을 확대 할 수 있는 쇄신의 가능성이 증대한다. (바) 생산효과(Production effect)—쇄신적 생산활동은 중심지역에 독점적 이익과 보다높은 생산의 문화를 가능케 하며 한편으로 도시의 외부경제와 규모경제가 증대함에 따라 쇄신의費用이 감소된다.—Friedmann (1969 a).

서 전환의 時宜가 적절히 잡혀졌다하더라도 성장의 단기적 전망을 저해하게 된다. 그리고 중심지역과 외곽지역과의 관계에 대한 力學 특히 두지역 간의 갈등의 원천과 정도 그리고 갈등해소: 수단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일탈확대현상은 발전의 초기단계에는 거의 필연적인 요소로서 그것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때 종속적인 외곽지역을 變換되고 있는 사회 및 공간체계내로 동원·통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일탈증대나 차이증진(Difference promotion)이 외곽지역에 대한 중심지역의 지나치게 경색된 支配로 굳어지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한다. 그래서 중심지역이 외곽지역으로부터 활발히 제기되는 정당한 압력을 언제, 어떻게 인식해서 적절히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시금상 지역정책을 전개하는 정책결정자의 결심에 달려있는 문제로歸着한다.

지역정책은 국가 및 지역발전의 능률성과 地域間에 福祉의 衡平性의 추구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정지역의 생산성추구를 위한 지역정책은 국가경제의 능률성을 극대화할뿐 아니라 그 지역내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에 발전효과와 그에 따른 복지가 골고루 나누어질 수 있는 方向을 설정한다. 그러나 지역정책 전개상의 중요한 과제는 능률성과 형평성이 同時併行의 2로 追求하기보다는 양자의 相衝을 해결하는 것이다. 즉 양자중一方의 극대화는 他方의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바 정책결정가는 두개의 지역정책기준을 어떻게 適正化(Optimization)하고 적정화의 수준을 언제 얼마만큼 해야하는 解答에 열쇠를 쥐고 있다.

이러한 문제배경아래서 지역발전의 중요한 정책수단이라 생각되는 성장거점정책이 국가 및 발전의 능률성 提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地域間의 所得과 福祉의 형평성 향상을 지향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해한다면 외곽지역 혹은 落後地域의 발전을 위한 전략전개는 정책결정가의 입장에서 유연해 질 수 있을 것이다.

성장거점정책은 간단히 말해 낙후지역 혹은 背後地, 혹은 외곽지역의 특정지점(대부분 도시인데 이를 성장거점이라 이름한다)에 발전주진적인 민간부문의 產業體를 유치하거나 혹은 정부부문의 「프로젝트」를 立地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立地論(Location theory)에 의하면 민간부문의 기업체는 原料 확보나 생산품판로상의 교통비를 最小限으로 줄일 수 있는 곳에 立地하는 것이 생산비용을 극소화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市場指向의 기업체는 소비자가 집결되어 있는 대도시와의 接近이 용이한 곳에, 原料指向의 기업체는 원료확보가 용이한 곳에 자리잡는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기업체는 대도시가 지역경제에 중심이 되고 있는 성장지역(Growing region)에도 자리잡을 수 있고 또 배후지에도 자리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實際의 기업체의 立地行態는 立地論이 설명하는 바와는 다르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특히 발전도상국의 경우에, 민간 기업체는 교통비를 절감하기보다는 오히려 (1) 교통시간을 줄일 수 있는 곳 (2) 관리적 및 기술적 專門人을 확보하기 용이한 곳 (3) 기업경

영상의 각종 情報交換이 용이한 곳 (4) 都市外部經濟의 수준이 높은 곳에 立地하기 마련이다. 위의 네 가지 조건이 확보되어 있는 곳은 대도시이며 그반대로 背後地(외곽지역)에 민간 기업체가 자리 끌을 가능성은 기업체의 능률극대화라는 관점에서 거의 배제되고 있다.

정부부문의 「프로젝트」를 배후지에 입지시키는 것이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상 능률적이라는 주장이 있다. ① 주장은 다음 세가지 사항에 바탕을 두고 있다. 첫째, 중앙정부는 「프로젝트」를 입지시킴으로서 얻을 수 있는 「프로젝트」 자체의 利潤性보다는 국가적인 利潤性에 더 많은 관심을 둔다. 국가적인 이윤성을 측정하기 힘들지만 대체로 다음 세가지를 뜻한다. (1) 「프로젝트」는 落後地의 주민들이 발전지향적인 새로운 態度, 새로운 意識, 새로운 生活樣式을 갖도록 하는데 기여한다. 바꾸어 말하면 배후지의 「프로젝트」 立地는 人的 資源의 개발을 위한 投資費라 생각된다. (2) 배후지의 「프로젝트」 立地는 특정지역의 기술지식수준을 향상시켜주며 다른 앞선 경제활동과의 정보유통을 연결해 준다. (3) 발전을 경험하지 못한 낙후지역이나 뒤후지역에 「프로젝트」를 입지시키는 것은 국민적 热意와 活力を 동원할 수 있는 「뉴·프론티어」를 창조하는 것이며 이는 국민적 團結의 구심점이 된다.

둘째, 「프로젝트」를 위한 자본투자에 있어서 투자자본의 이자율을 일반 민간자본시장에서 형성되는 수준보다 낮게 算定한다. 따라서 시장이 자율에 따른 민간부문의 기업체입지는 비능률적이지만 「프로젝트」는 낮은 정부이자율 때문에 배후지에 능률적인 입지가 가능하다. 세째, 정부「프로젝트」의 효과는 거의 永久的이라는前提下에 「프로젝트」의 減價償却率을 아주 낮게 잡는다. 그래서 배후지에서 「프로젝트」의 효과가 늦게 발생하더라도 별로 개의치 않는다.

위의 論議에 ①을 看破할 수 있듯이 민간기업이나 정부「프로젝트」가 배후지에 입지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市場經濟體制아래서는 비능률적인 것으로 나타나며 단일 지역정책이 배후지나 낙후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그래서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기업을 유치하거나 「프로젝트」를 입지시키기는 것은 국가경제의 능률극대화를 일부 희생하면서 이루어 질수밖에 없다. 이 論點은前提하고라도 오늘날의 지역발전론의 未解決의 章은 국가경제성장(능률성)과 지역간 衡平性⁽⁷⁾ 간의 代價交換(Trade-off)에 대한 어떠한 公式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문제는 있되 해결을 위한 이론적 해답을 얻지 못한 국가발전과 지역개발의 갈등은 政治的 源元에서의 해결로 미루어진다. 성장거점정책은 國民統合을 위해 국가발전의

(7) 능률성을 操作的으로 정의하기는 비교적 용이하지만 지역간 격차해소라는 형평성의 문제는 지극히 정의하기 힘든 개념이다. 첫째, 형평성의 측정은 그 대상으로 하는 지역의 地理的 범위에 따라 变化된다. 지역을 細分하면 지역간 격차는 더 심각해지고 지역을 크게 잡으면 지역간 격차는 빛 대로 줄어든다. 둘째, 인구는 지역간에 이동을 하기 때문에 지역단위의 형평성과 형평성의 대상이 되는 住民들을 구별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장소적 福祉나 住民을 위한 福祉나 를 구별해야 한다. 발전도상국들의 경우에 낙후지역을 개발하는 名目으로 현대적인 대기업체를 입지시키면 地域所得計算상 지역소득의 증대가 있을지 몰라도 그런 대기업은 자본집약적 이기 때문에 당해지역에의 고용효과는 저조할뿐 아니라 비록 적은 고용효과나마 현지에서 초

능률을 희생시키고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할 때⁽⁸⁾ 정치지도자들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다(Alonso, 1968 and 1970).

III. 지역발전을 위한 성장거점 정책

1 지역정책수단으로서의 성장거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발전은 지리공간상에서 同質的(Homogeneous or uniform)으로 나 혹은 無作爲的(Random)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상의 특정지점을 중심으로 分極的으로 발생하는 것임을 경험적인 관찰에서 살펴본 바 있다. 그것이 지역발전의 중요한 목적 기준의 하나인 국가경제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인가 또는 지역간 격차해소를 뜻하는 형평성 확보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능률성과 형평성을 邁正化하기 위한 정책수단인가를 여기서 留外로하고 지역발전론이 설명하는 성장거점의 지역정책상의 위치와 성격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성장거점은 낙후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地理空間의 정책수단으로 이해되는 것이一般的이고 이는 銅錢의 앞·뒷면과 같이 대도시의 인구과밀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도 一部 이해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낙후지역은 적절한 경제적 기회를 확보하지 못한 까닭에, 생산적인 노동력이 그 지역을 떠나 대도시로 몰려들기 때문이라면 낙후지역에 성장거점을 설치·육성하여 당해지역 경제의 활발한 중심지로서 역할 하게 하면 낙후지역을 개발할 수 있을뿐 아니라 대도시로 유입될 뿐만 아니라 노동력을 성장거점이 흡수함으로서 결과적으로 대도시의 인구과밀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장거점정책의 明示的이며 直接的인 목적은 낙후지역의 개발이고 대도시인구과밀 해소는 副次的이며 간접적 목적이라 하는 것이 비교적 타당性을 설명이라 할 것이다.

지역정책으로서의 성장거점의 정의가 포괄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다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성장거점은 발전추진적(Propulsive) 產業과 企業의 立地이다. 발전추진적인 企業은 지역에서 다음을 특성을 가지고 있다(Richardson, 1969) : (1) 반드시 노동력을 대규모로 고용하는 업체가 아니고 직접, 간접으로 지역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체이다. (2) 이들 업체는 고도로 집중되어 있으며 대체로 地域外로 나라全體의 市場에 그 제품을 판매한다.⁽⁹⁾ (3) 업체가 자리잡고 있는 지역에 현저한 乘數效果 및 分極效果를 미친다. (4) 업체가

현대적인 기업에 종사할 수 있는 機能工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노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場所의 福祉와 住民의 福祉와의 乖離가 생긴다.

(8) 경제학자 Mera의 연구는 日本의 縣間의 지역소득격차를 平準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소득의 수준을 15%내지 30% 줄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계산하고 있다.—Alonso(1970)에서 再引用

(9) North(1965)의 지역경제성장이론이 설명하는 바에 따르면 지역내의 제품을 타지역으로 판매

사용하는 生產要素는 지역내에서 조달되며 그결과로 업체의 要素費用이 지역내에 투하됨으로서 주민들의 有効需要를 증대시킨다. (5) 이들업체의 생산품은 지역내외에서 높은 수요의 소득탄력성을 유지함으로서 지역의 基幹產業 확장율은 국민소득의 증가율을 훨씬 능가한다.

발전추진적인 산업의 성격을 논함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혼히 생각하듯이 반드시 제조업 등의 제2차산업만이 발전추진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行政, 서비스, 상업기능의 중심이 된 제3차산업¹⁰ 있는가 하면 觀光, 정보산업(大學, 연구소, 자료처리센터)등의 제4차산업이 발전추진적인 산업일 수 있다. 사회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특히 제4차산업이 지역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최근에 많은 學界의 주목을 받고 있다.

둘째, 첫째의 특성에서 이미 지적한바 있지만 분극적 효과로 성장거점은 주변지역의 유동 노동력을 흡입하는 지점이다. 落後地域의 未就業 혹은 低就業勞動力を 위해 성장거점은 취업기회를 제공하며, 한편으로 새로운 유입인구로 자체의 도시이익을 集積한다.

세째, 성장거점은 대도시에서 과급되기 마련인 사회·경제적 쇄신을 주변지역으로 전파시키는 매개지점이다. 동태적인 과정으로서의 지역발전은 쇄신이 지역으로 확산되는 과정이다. 대도시에서 시발되기 마련인 쇄신은 지역경제의 중심이 되는 도시를 매개로 주변지역에 전파되는바, 대도시에서 중간도시로 중간도시에서 소도시로 쇄신이 공간상에서 확산되는 과정을 階層擴散이라 한다. 계층확산에서는 개별도시의 상대적 크기가 지역상의 쇄신파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지역경제의 중심도시가 소도시이면 대도시로부터 계층을 따라 과급되는 발전효과 혹은 쇄신을 매개해 줄수 있는 중간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쇄신이 미쳐 낙후지역의 소도시로 전파되기전에 斷切되어 버린다.⁽¹⁰⁾ 따라서 낙후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소도시를 성장거점정책의 일환으로 중간규모도시로 육성하면 종래에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발전효과로부터 단절되어 있던 동지역에 발전을 가져다 주는 디딤돌(Stepping stone)이자 <外部情探的 視點>(Outward-looking center)을 형성하는 셈이 된다.

네째, 성장거점은 도시발전을 <자체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Self-sustaining)도시를 의미한다. 따라서 5-정책은 自體持續의이지 못한 도시를 육성하여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 경제의 수준을 提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망라적인 설명은 아니지만 자체지속적인 도시의 특성⁽¹¹⁾은 아래와 같다. (1) 地方經濟(Local area economy)의 內部市場은 중심도시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증가한다. 또한 지방경제의 수출산업이 확대되면 지방자체의 서비

함으로서 얻는 이익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10) 지역발전¹⁰의 비교적 새로운 관심분야인 쇄신의 공간적 확산에 대한 이론적 수준과 세계적인 경험의 實例, 그리고 근대화과정에서의 한국의 事例에 대한 연구는 金炳國(1974) 참조

(11) 자체지속기 도시의 개념은 경험적으로 검증된 것이 아니어서 短片의이고 直觀的인 정의가 가능 할 뿐이다.—Friedmann(1973).

스 산업의 비중도 늘어난다. 이 결과 지방경제의 수요와 공급이 자체내에서 창출되기 때문에 外部需求가 변화하드라도 自體持續的인 도시가 중심이 된 지방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경감된다. (2) 시장규모의 擴大는 지방경제와 그 중심도시(자체지속적 도시)가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¹¹을 강화해 주는 외부경제의 증대와 지방경제의 산업이 高度로 전문화됨을 뜻한다. (3) 시장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경제성장을 스스로 전개할 수 있는 地方民의 역량이 증대한다. (4) 시장규모의 확대에 따라 고급 서비스업이 입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결과로 주변 지역을 포함한 有効市場領域이 확대된다.

다섯째, 성장거점은 적정규모도시를 의미한다. 도시생산성이나 도시인구면에서 살펴본 적정도시 규모를 계량적으로 파악하기 힘들다. 그러나 實的인 차원에서 언급하자면 적정규모도시란 심각한 집적의 불이익(교통혼잡, 환경오염등)이 발생함이 없이 규모 및 외부경제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도시규모를 上限線으로 하고 관련지역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시규모경제를 확보한 한계규모(Critical minimum size)를 下限線으로 하는 도시를 뜻한다. 예번째에서 정의한 자체지속적인 도시로서의 성장거점은 동태적인 측면에서 정의한 성장거점이라 한다면 적정규모도시는 정태적인 의미에서의 성장거점을 정의한 것이다(Richardson, 1969).

여섯째, 성장거점도시는 지역내외의 같은 계층의 도시와는 기능적으로 전문화되면서 서로 보완하고, 上下位의 다른 계층의 도시와는 통합된다(Richardson, 1972). 같은 계층의 도시가 성장거점에 가까이 자리잡고 있고, 두 도시의 기능적 성격이 비슷하면 서로 경쟁하게 된다. 그러나 비록 두 도시의 규모가 비슷하드라도 각각의 相對利益에 따라 전문화되어 있으면 두 도시는 補完的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나아가서 上下位의 다른 계층도시와 쇄신의 학산과정으로 有機的 연관을 맺고 이때문에 도시체계전체의 통합도가 증대되면 이는 곧 도시통합에 의한 국가발전을 의미한다(Friedmann, 1969b).

위의 논의와 관련하여 도시들의 相對的 立地(다시 말해서 도시간의 거리)에 따라 도시경제의 수¹²들이 달라진다는 이론과 간단한 경험적 검증이 있다(Böventer, 1969; Alonso, 1970). 즉 두 도시간의 거리가 가까우면 두 도시는 都市間 集積利益(Interurban agglomeration economies)에서는 서로 이득을 보지만 背後地効果에서는 경쟁이 생겨 대도시가 유리해진다.⁽¹²⁾ 따라서 대도시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고 소도시는 대도시에 가까이 있는 것이 유리하다는 경험적 검증은 성장거점을 육성할려는 지역 정책의 전개에 의미있는 示唆를 提示하고 있다.

2 성장거점과 工業複合地, 中心地 및 新都市

앞에서 서는 지역정책에서 논의하는 성장거점의 다양한 성격을 설명하였다. 아래서는 성장거

(12) 도시간의 집적효과와 배후지효과에 대한 이론적 수준은 金炯國(1973a) 참조

점이 다른 지역 발전의 정책 수단들과 적지 않게 混用되어 왔음에 비추어 이들과의 차이를 밝히고 나아가서 이러한 比較檢討를 통해 성장거점의 의미를 부각시키고자 한다. 성장거점은 工業複合地(Industrial complex), 新都市(New town), 그리고 中心地(Central place)와 서로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① 工業複合地(Industrial complex)와 성장거점

공업복합지의 개념이 계획에 이용되기는 쏘련의 경제개발계획에 의해서였다. 광범위한 의미기는 하지!]¹³⁾ 공업복합지는 일정지점에 자리잡고 있는 一連의 기술적이며 경제적으로 잘 상호연결된 工業體를 뜻한다. 공업복합지의 특징은 하나의 核心的 基幹產業이 주축이 되어 주위 공업체와 함께 定着化利益(Localization economies)를 창출한다. 기계공업, 石油化學공업, 製鐵공업등이 대체로 공업복합지의 주요구성이다. 농산물 加工工場이 중심이 된것은 달리 農工業複合地(Agro-industrial complex)이라 불리워진다.

성장거점과 다른점은 공업복합지는¹³⁾ 기본적으로 機能的인 개념인가 하면 전자는 地理的 개념이다. 따라서 하나의 성장거점내에 둘 이상의 공업복합지의 立地도 가능하다. 성장거점은 定着化利益과 都市化利益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공업복합지는 전자의 이익에 역점을 둔다. 또 하나의 차이는 성장거점의 산업입지는 반드시 基幹產業의 유치를 필요로 하지 않고 발전추진적인 산업의 유치에 목적을 둔다.

② 中心地와 성장거점

상업적 도시기능의 크기로 定義되는 중심지(즉 도시)의 성장은 중심지이론(Central place theory)이 설명하는 바와 같이 중심지의 市場인 背後地(Hinterland)의 크기에 따라 좌우된다. 바꾸어 말하면 중심지의 성장은 배후지의 從屬變數이다. 한편 성장거점은 지역경제의 核心地點(Core)으로서 영향권(Zone of influence)에 속하는 주변지역의 성장을 유발하는極이다. 따라서 영향권의 성장은 성장거점이 파급하는 발전효과의-종속변수이다. 요약하면 성장거점과 중심지는 주변지역과의 상관관계에서 정의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발전의 힘이 오가는 방향에서 서로 다르다.

둘째, 성장거점은 지역경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한 지역에 1~2개정도 입지할 뿐이지만 중심지는 크고 작은 것이 계층을 형성하면서 한 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앞서 논의한 특성에서 지적한 바 있지만 성장거점이 자체지속적인 발전을 이루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만이상의 도시인구를 확보해야 되지만 중심지는 최하로 1~2천 정도의 인구취락에서도 형성가능하다.¹⁴⁾

(13) 工業複合地는 工業團地(Industrial estates and zones)와 다르다. 후자는 일정지역의 下部構造를 같이 용하나 산업체끼리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전자는 산업체간의 기능적 연결성이 높은 비중을 둔다.

(14) 적정도시 규모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제시한바에 의하면 25~100만사이의 도시가 자체지

③ 新都市와 성장거점

신도시는 문자그대로 새로운 인간정착지(도시)임에 반해 성장거점은 기왕에 지역경제체제 아래서 市場 중심지 등의 자연적인 實體로서 존재하는 도시를 지역경제발전의 선도적인 極으로 육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신도시는 대체로 自給自足의 노동력시장(Labor market)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에 성장거점은 주변지역에서 移入되는 流入人口를 위한 就業機會의 창출에 力點을 둔다. 세째 신도시는 인구과밀 상태에 있는 대도시로 부터 과밀인구분을 逆流시켜 대도시인구과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인가 하면 성장거점은 물론 이러한 역할도 수행하지만 다분히 한정된 교통거리 안에 있는 지역주민을 위해 보다 많은 경제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둔다(Hansen, 1971).

그러나 신도시와 성장거점의 區別은 이론이나 실무상 거의 混用내지 併用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론적으로 Rodwin(1970)은 영국의 신도시를 그의 <Concentrated decentralization> 개념으로 이해하면서 성장거점과 거의 区別하지 않고 있다. 실무적으로도 이스라엘의 「발전도시」(Development town)는 거의 새로이 건설되었다는 점에서 신도시이고 사막 및 새로운 邊境地或은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성장거점에 부합되며, 발전도시의 계층적 위치를 중심지 이론에서 빌려왔다는 점에서 중심지와 유사하다(Shacher, 1971).

3. 성장거점정책의 전개

앞에서 주로 성장거점의 이론적 내용을 논의한바 있거나와 실무면에서 커다란 각광을 받고 있는 성장거점정책은 중심지역과 외곽지역과의 공간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외곽지역내에 또 하나의 발전국(성장거점)을 설치함으로서 새로운 組의 공간적 불균형을 이룩한다. 그래서 외곽지역으로 도시체계를 점차 확장시키는 것이 국가발전의 適正路線이라고 強調하고 있다(Friedmann, 1966: 50).

그러나 성장거점의 이론적 未熟때문에 實務面에서 一連의 規範的信念(Cameron, 1970)을 바탕으로 성장거점정책이 전개되어 온 實情이다. 성장거점은 <資源의 不適正한 지리적 配分>이란 1진국의 지역개발문제와 <자원을 새롭히 動員>해야하는 발전도상국의 지역문제에 有効한 정책수단으로 이해되고 있다. 특히 발전도상국은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Development project)의 能率의 立地選定과 이를 「프로젝트」가 보다 넓은 지역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전의 파급효과성을 함께 고려하면서 발전의 적정한 지리적 配分을 摸索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속적(self-sustaining)인 성장을 계속할 수 있다고 한다(Richardson, 1972). 한편 나라마다 階層構造가 다르겠지만 Berry(1967)가 연구한 1960년의 미국의 中心地階層에는 제일 下位의 中心地로 불과 인구 500명 전후의 村落(Hamlet)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성장거점정책은 바로 다음과 같은 지역정책적 문제를 고려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어디에 立地시켜야하는가? (2) 경제적 능률성에서 그리고 성장을 위한 자국을 발생하고 파급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有利한 產業體의 複合을 만들수 있게끔 이를 「프로젝트」들은 어떻게 관리「프로젝트」와 함께 추진될 수 있는가? (3) 行政地域과 中心地의 關係는 어떻게 構成되어야 하는가? (4) 행정체계의 기능적 분업과 공공및 민간서비스의 전기 체계는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며, 또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생겨나는 사회변화에 어떻게 발전적으로 적응해야 하는가? (Hermansen, 1972)

이러한 前提的 問題意識아래서 전개된 성장거점정책의 다양한局面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성장거점은 성장거점이 지역경제의 市場構造에서 찾아볼 수 있는 自然的 實體이냐 아니면 정책적措置로 성장이 용이주도하게 새로이 조성될 수 있는 지역을 뜻하느냐를 결정해야 한다. 성장거점이 잘못 選定되어 추진되면 동거점을 지탱하기 위해 永久的 인補助를 필요로 할지 모르나 잘 選定되면 거점의 성장을은 멀지않아 自體持續的인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 대체로 지역경제의 市場체계에서 존재하는 據點을 선정하는 것이 혈명한 결정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성장거점은 지역정책이 목적하는 바에 따라 그 계층적 위치가 달라진다. (1) 대도시 인구과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성장거점정책은 중간규모도시를 대도시유입예상인구의 代案的 立地로 產生한다. (2) 분산되어 있는 농촌인구를 위해 市場設備와 公共 및 民間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면 하위계층의 소도시를 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

세째, 성장거점 育成政策을 “능동적 및 피동적” 혹은 “始發的(Initial) 및 強化的(reinforcing)” 인 내용으로 나누할 수 있다. 피동적이며 강화적인 정책은 선정된 성장거점의 既存의 발전 추세를 지속시키는데 관심을 두어 物量計劃(Physical planning)에 큰 力點을 준다. 公共部門의 투자도 优先에 따라 배정된다. 능동적이며 시발적인 정책은 지역문제가 固彌化되어 있고 문제지역의 도시시설의 공급이 부적합한 것은 資源의 不適正한 地理的 配分때문이며 이는 적극적인 接近을 통해 고쳐질 수 있다고 보아 物量計劃보다는 經濟計劃을 그리고 綜合的 戰略과 直接的 수단을 동원한다. 공공 및 민간투자를 현재의 필요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예기되는 발전의 潛在力を 바탕으로 실시한다.

네째, 성장거점은 지리적 요소가 강조된 것이냐 아니면 공업적, 조직적인 요소가 부각된 것이냐로 구별될 수 있다. 후자인 공업적, 조직적 공간에서 본 성장거점은 先導的인 工業을 유치함에 있어 낙 대체로 대도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子企業體의 誘致를 中心으로 한 도시경제육성을 뜻한다(Lasuen, 1969). 단지 지리적인 성장거점은 특정한 공업체의 立地없이 공공시설투자, 교통망개선등의 다각적인 次元에서 도시기능이 提高된 곳을 의미한다.

4. 성장거점정책의 事例와 經驗

앞에서는 편의상 성장거점과 그 유사개념을 비교설명하였고 지역정책상 식별할 수 있는

성장거점의 다양한 측면을 소개하였다. 아래서는 선후진국에서 시도되었던 성장거점정책의 사례와 그 경험으로 불란서, 「이스라엘」, 日本(선진국)과 인도(후진국)를 살펴본 다음 이어서 한국의 경우를 간단히 論評하기로 한다.

성장거점정책의 경험적 사례를 먼저 선진국인 불란서, 「이스라엘」, 日本의 경우에서 찾아본다. 첫째, 불란서의 지역문제는 <파리와 불란서 砂漠>(Paris et le desert francois)이라고 創의이니·마 적절히 표현(Hall, 1966)된 바와 같이 불란서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諸價值와 힘이 首都「파리」에 집중되다시피 하여 「파리」이외의 지역과 심각한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파리」도시지역이외의 8개 도시(均衡의 地方大都市: Metropoles dééquilibré)를 선정하여 파리에 대案的인 대도시로 육성하는 성장거점정책을 수립하였다. 이들 도시를 최소한 100萬의 인구규모로 육성하여 分極的지역의 외곽과 상호관련성을 증대시키려 하였다. 즉 외곽지역으로부터 物易의 유통을 <균형의 지방대도시>로 集中시키는 한편 당해 지역의 소도시에 도시문화를 매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가장 낙후된 지역의 小都市와 聚落은 人口流出을 시켜 安樂死시키기 계획하였다(Hansen, 1969).

그러나 불란서의 성장거점정책은 당초에 예기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균형의 지방대도시>를 선정하는데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以前에 지방분산을 위한 21個의 計劃地域(Program region)의 施策과 조정 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지방대도시>는 지역발전의 促進劑이 아니면 이들 도시와 외곽지역과의 지역내격차를 유발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일어났다. 다시 말해서 성장거점정책은 외곽지역의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고갈시켰는가 하면 지방대도시의 都市混雜을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Stucky, 1972).

「이스라엘」의 都市化정책의 일환으로 인구 6,000—12,000, 그리고 15,000—60,000 규모의 發展都市(New town)을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부른다)를 만들어 균형적인 국가도시체계(중심지이·는이 설명하는 바와 같은)를 형성할뿐 아니라 발전도시 주변의 小都邑에 상업 및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중심지로 만드는 시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결과적으로, 발전도시의 건설로 국가도시체계는 等位規模分布로 移行하고 있어 建國 당시에 比해 현저히 균형을 잡게 되었으나 국민소득의 증대, 경제적인 교통수단(자가용의 보급)의 개발로 小都邑은 지역중심지인 발전도시를 거치지 않고 대도시 「تل·아비브」와 직접적으로 경제적 연결을 용이하게 맺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발전도시를 주변지역의 중심지로 만드는 지역통합목표는 성공하지 못했다(Shacher, 1971).

1969년에 新全國總合開發計劃(The New Comprehensive National Development Plan)을 수립한 日本은 전국을 잇는 교통·통신망을 새롭게 건설하여 국토의 균형적 이용을 提高함과 동시에 새로운 공업성장거점의 開發를 試圖하였다. 선정된 성장거점에 공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下部構造의 투자와 稅制上의 惠澤을 주도록 하였다. 그러나 성장거점에의 하부

구조를 기준의 대도시 수준으로 올려 공업유치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정부가 막대한 투자를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懐疑와 둘째, 稅制上의 혜택이 공장의 立地決定에 극히 微少한 영향력을 미칠 뿐이라는 관점에서 성장거점정책의 성공적 수행에 부정적인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Kabaya, 1971).

후진국인 인도의 경우는 첫째, 대도시는 過密都市化되어 있고 소도시는 過少都市化되어 있으며, 둘째, 「綠色革命」(Green revolution)은 식량의 자급자족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한편으로는 漸增하는 농촌실업과 사회계층 및 지역간의 격차등의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에 도움되지 않았고, 세째, 농촌 및 落後地域을 지원할 수 있는 制度的 下部構造를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있는 각한 지역문제에 당면하고 있다. 이들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印度의 제2차 경제개발5년계획(1955—59)과 그 이후에 계속된 장기개발계획은 성장거점정책을 채택하였다(Misra, 1972).

인도에서 重要視되는 성장거점의 정책적 要件은 첫째, 광대한 저개발지역을 지원하는 「서비스·센터」를 만들어 지원대상지역에 적어도 전문적 및 일반적인 醫療 와 教育 그리고 日常의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쇄신적이며 성장촉진적인 「센터」는 加工 및 製造業으로 주요산업을 구성하면서 농촌에서 유출되는 노동력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세워, 사회계층간의 差別이 극심한 사회이기 때문에 성장거점은 사회적 접촉「센터」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도의 성장거점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인구 5,000—10,000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센터」는 농촌지원型의 서비스를 제공할뿐 아니라 사회접촉을 위한 거점으로 지난 20여년이래 계획되고 있으나 아직 체계적인 수립을 보지못하고 있다. 「서비스 센터」의 上位階層에는 50—100萬의 지역인구를 지원할 수 있는 인구 1—5萬 수준의 「成長點」(Growth point)을 설치한다. 성장점은 그 이쪽에 추진되어온 상업기능중심의 2,000여개의 市場都邑(Market town)⁽¹⁵⁾을 확대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시장도읍은 100평방마일에 걸친 지역에 散在한 300여개의 부리에 서비스 및 各種 市場活動을 제공하게 되어 있지만 관련지역과의 기능적 유대는 사실상 극히 미약하다. 따라서 이들 시장도읍의 상업기능에다 農工業的(Agro-industrial) 기능을 추가한 成長點의 육성이 時急하다. 서기 2,000년까지 총 1萬個의 성장점의 육성이 바람직하나 현내의 制度的 및 財政的 舛件으로 가능할 것 같지 않다.

계층적으로 성장점위에 인구규모 5—50萬 수준의 「성장거점」(Growth center)을 약 500여 개를 선정하여 「칼카타」, 「뭄베이」, 「델리」등의 대도시과밀을 막는 代案的(Alternative) 공업도시로 육성하며, 「성장거점」 위에는 인구 50—250萬명 수준의 「성장극」(Growth poles)을

(15) 지역 발전 특히 발전도상국의 농촌지역발전을 위한 市場都邑(Market Town)의 意義에 대해서는 Owen(1958), Johnson(1970) 그리고 Weitz(1971) 참조.

만들고 이를 「서비스센터」, 「성장거점」, 「성장거점」과 연결하여 국토공간조직을 도시계층적으로 통일할 것을 아울러 계획하고 있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성장거점정책은 어떠한가? 지난 60年代初이래 강력하게 추진되어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나 1971년에 成案을 본 國土綜合開發計劃(1972-1981)에 地域政策으로서의 성장거점이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行政實務에서 소위 據點開發이라는 용어가 광범히 쓰여지고 있지만 성장거점이 뜻하는 바와 다르다. 단지 성장거점과 유사한 정책·단이 여러 형태로 전개되었을 뿐이다. 공업단지造成, 중소도시육성등이 그것이다.

產業部門計劃(Sectoral planning), 즉 공업伸張에 역점을 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성과가 지역적으 모습을 나타낸 것은 선흥 공업도시 蔚山, 浦項, 馬山 등지에 설치된 공업단지들이다. 이를 공업단지는 이름하는 그대로 성장거점이라 할 수 없다. 오히려 울산공업단지는 기업체들이 기술적, 경제적으로 상호연결되어 있을뿐 아니라 하부구조를 같이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업복합지(Industrial complex)이며, 全州등 각 중요도시에 설치된 공업단지는 유치된 기업체들이 기술적으로 系列化된 것이 아니고 하부구조만 共用하고 있다는 점에서 工業團地(Industrial estate or zone)이다. 이들이 성장거점이라 이름할 수 없는 요인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업단지가운데 국가적으로 성공적이라 할 수 있는 단지들의 立地選定에서는 산업입지론에 따른 立地的 능률성(Locational efficiency)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다. 따라서 성장거점의 독적가치인 지역격차의 해소 보다는 오히려 격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둘째, 공업단지 몇몇은 초현대적이며 자본집약적인 기업체를 유치했으나 이를 중심으로 前後方波及效果로 연결될 수 있는 기업체의 유치가慎重하게 考慮되지 않았다. 또한 이들 기업체가 자본집약적이기 때문에 고용효과가 낮으며, 비록 고용효과가 높더라도 이들에 필요한 숙련된 기능공은 현지에서 확보할 수 있는 노동력이 아닌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대기업체의 操業은 現地에서 조달된 것이라기 보다는 外國에서 수입된 원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수입대체적 효과와 외화절약의 이득을 볼 수 있었지만 지역적인 측면에서 기대되는 소득효과, 기술효과, 고용효과는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른것 같지 않다.

중소도시의 육성은 지금까지 散發의이며 간헐적인 정책수립이 있었으나 본격적이고 효과적이며 체계적인 정책은 아직 전개되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중소도시의 육성책으로 정부기관의 5방이전이 계획·실천되고 있음이 주목되고 특히 大田에 자리잡을 研究學園都市도 중소도시 육성의 일환으로 이해되고 있다. 연구학원도시의 경우는 막대한 투자를 요하는 수도시의 거설을 거의 자체추진적인 도시성장을 보이는 대체에 입지시킴으로서 다른 낙후지역에 전개했다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포기하는 立地的 機會費用이 막대하며, 그곳에 종사할高度의 전문적, 기술적종사자들의 대도시문화지향성(Richardson, 1969) 때문에 有効한人力

을 大田으로 유치할 수 있을지도 문제의 하나로 생각된다. 중소도시 육성이든 공업단지의 조성이든 우리나라의 소위 성장거점정책은 전체 도시계층간의 유기적 연결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음도 문제중의 문제라 할 것이다.

IV. 結論—새로운 研究課題

지역경제의 분극적 발전을 설명하는 成長極과 成長據點理論은 당초에 몇몇의 기술적으로 앞선 산업에다 經濟力を 집중시키고 친밀한 投入—產出의 연계로서 나머지 經濟와 밀착시킨다는 非空間的 경제이론에서 출발하였다. 이 이론은 「프랑스—벨지움」學派 특히 Boudeville (1966)에 의해 공간경제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規範的인 政策的構成으로 발전되었다. 그러나 理論의 成熟을 보지 못한채 성급한 지역계획가들이 거의 無分別하게 성장국과 성장거점의 두 개념을 混用하여 많은 混亂을 야기했고, 그결과로 政策適用은 성장국과 성장거점이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 지역계획의 實務에서 이해하는 성장국과 성장거점정책은 두개의 原則을 전제로 하고 있다. 첫째, 생산자들이 下部構造의 諸施設을 共有, 共用하기 때문에 도시생산이 저렴해진다는 集積經濟에 착안하여 성장거점의 地點에다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政策變數이다. 둘째, 經驗的研究에서 충분히 實證된 것은 아니지만 특정 지역에 최초로 定着된 경제발전은 早晚間 주변 지역으로 파급될 것이다(Friedmann, 1973).

이러한 政策의 热意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構造的 轉換을 유발하는데 성장거점이론이 效果的으로 이 용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름아니라 성장거점이론의 限界에 대한 지식의 缺如 때문이다(Thomas, 1972). 어떤 지식의 缺如이냐 하면 첫째, 시간상에서 성장거점(혹은 성장국)의 성장과정 혹은 구조적 변화에 대한 지식의 不足 둘째, 지역성장의 空間的構成의 特성과 意義에 대한 理解의 缺如이다.

먼저, 시간차원상에서의 성장거점의 성장과정에 대한 未解決의 知識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성장국이나 성장거점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발전추진적인 기업과 이것의 영향을 받는 영향기업(Affected industries)과의 상호작용, 다시 말해 이를 기업으로 묶어진 산업구성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學的인 關心이다. 短期的으로 발전추진적 기업의 제품가격이 引下하면 직접·간접으로 기술적 連繫를 맺고 있는 영향기업을 자극하여 산업전체의 구조적변화를 일으킨다. 5년, 100년의 長期的 觀點에서의 산업구조 變化는 기업의 生死를 의미한다. 문제는 성장국이 산업구조의 變化와 관련된 지역성장의 시간상의 변화를 고찰하기에 적합한 시간적 「파스펙티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성장국이론이 채택하고 있는 投入—產出分析은 產業技術과 산업부문의 구성이 시간상에서 지속적 안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바람직한 지식은 발전의 동태적 과정 즉 산업기술과 산업

부문의 구조의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이다.

(2) 성장국이론은 기업의 行態的側面에 대한 연구를 필요로 한다. 발전추진적 基幹產業의 생산확대에 따라 영향기업이 어떻게反應하는가에 대한 行態研究는 非行態的研究와 함께 성장국이론의 중요구성임에 틀림없다. 성장국이론의 선구자들인 Perroux(1955)와 Hirschman(1958)⁵ 연구는 供給不足 또는 過剩供給 등의 壓力이 企業者의 生산의욕을 자극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바 있다.

(3) 지역경제성장은 刷新의 地域定着을 뜻한다. 지역경제를 先導하는 기업의 쇄신발생 가능성은 급속한 성장을 경험한 기업일수록 높다고 생각되어왔다(Richardson, 1969). 그러나 그반대의 경우로 規模不經濟(Scale diseconomies)에 당면하고 있는 기업이 오히려 더 높은 쇄신발생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진바 이점은 기업활동의 行態分析과 연결되어 검토될 성질의 문제이다(Brown, 1966).

(4) 성장국이론에 있어서 기술변화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어야 한다. 기술변화는 생산함수가 바뀌어지고 기술의 능률성이 변화하나 勞動의 資本代替限界率(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of labor for capital)이 변화하지 않는 「中立的技術變化」(Neutral technological change)와 資本의 勞動代替彈性 및 資本度의 차이에 따른 產出效果의 變化를 의미하는 「非中立的技術變化」로 分類된다. 技術變化의 두가지 類型인 자본의 노동대체효과와 노동의 자본대체효과를 정확히 이해한다면 정책수단으로서의 성장국 개념을 동원하는 것이 대단히 효과적이 될 것이다. 흔히 성장국정책을 채택하여 특정지점에 현대적기업을 유치하였으나, 그 결과는 자본의 노동대체효과가 커서 오히려 失業이 늘어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한편에서는 현대적 기업이 영향기업과의 기능적인 연결로서 지역경제를 팽창시킴에 따라 一時的인 실업의 증대는 취업율의 확대로 바뀌어질 것이라는 점에 留意하고 있다. 이들 두 상황이 지난 갈등은 기술변화의 의미를 정확히 간파함으로서 해결될 수 있다.

(5) 성장국이나 성장거점 정책의 궁극적 목적중의 하나는 지역의 생산성을 증대하는 일이다. 지금까지 지역의 생산성은 非空間的 틀(framework)속에서 部門產業을 고도로 취합(aggregation)된 차원에서 연구되어 왔다. 만일 部門產業을 낮은 水準으로 細分하여 각 산업의 生産성이 時次元上에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면 특정도시의 구조적 변화와 성장을 유발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도시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서의 성장국의 意義가 한층 高揚될 것이다.

둘째, 성장국이론이 결실히 필요로 하는 지식은 발전의 空間的樣相, 다시 말해서 발전의 지역定着에 대한 것이다. 발전은 國土全體나 地域에서 한결 같지 않다. 성장국이론이 특정지점에 바람직한 구조적 변화를 유발할려면 다양한 발전의 空間的構造가 어떻게 생겨났으며 그것들은 왜 변화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한다.

지금까지 부속하나마 발전의 空間的側面에 대해서는 立地論에 힘입고 있다. 周知하다시피 소위 전통적인 立地論(Alonso, 1968)의 연구는 靜態性이 그 특징으로 되어 있다. 발전이란 動態性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지식은 일단 끝난 變化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持續的인 起伏를 뜻하는 變化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특정 산업의 立地를 고찰함에 있어서 주어진 變화에서가 아니라 變化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생산요소價格의 주어진 變化의 영향에서가 아니라 生产요소價格의 變化율이 產業立地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여야 한다. 한편 立地論者들은 새 工場의 立地問題에 대부분의 관심을 경주하고 있으나 한 UN 調査에 의하면 선진국의 경우에 製造業에 投資되는 資本의 60-80%는 既存工場의 转向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다고 한다. 이 사실에서 도출할 수 있는 含蓄은 立地論은 새工場의 立地決定論 아니라 企業體의 投資決定까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點을 강조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발전의 공간적 측면 혹은 立地의 特性의 규명이 성장극이론에서 차지하는 意味는 성장극과 성장거점이 서로 區別된다는 觀點에서 광범하게 論議한바 있다. 성장극 이론이 미처 다루기 못한 자리공간에서의 발전과정을 도시기능의 분포, 크기, 배치를 설명하는 데 有效한 中心地理論을 採用하여 설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한결음 더 나아가 공간 경제의 兩大山脈인 성장극이론과 중심지이론의 통합으로 새로운 공간경제이론을 모색하려는 연구도 전개되고 있다. 새 潮流의 旗手는 혁신의 공간적 화산연구⁽¹⁶⁾에서 힘입은 發展軸(Development axis) 또는 都市回廊(Urban corridor)⁽¹⁷⁾의 형성과 그것의 都市經濟의 意義에 대한 연구이다. 이를 두 개념은 기왕에 Megalopolis라 하여 常識的觀察을 토대로 오래 論議되어 온 바이지만 도시경제, 지역경제의 새 潮流에 힘입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參 考 文 獻

- 金炯國(1973a), “서울과 周邊都市와의 相互作用—現況과 問題點”, 都市問題, Vol. 8, No. 6.
- 金炯國(1973b), “都市 및 地域發展關係 重要論文註解書誌”, 都市問題, Vol. 8, No. 10
- 金炯國(1974), “刷新의 空間的擴散과 地域發展” 環境論叢, Vol. 1, No. 1
- Alonso, William(1968), *Industrial Location and Regional Policy*, Berkeley: Institute of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UCB. Working Paper No. 74.
- Alonso, William(1970), *The Economics of Urban Size*, Berkeley: Institute of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UCB. Working Paper No. 138.

(16) 혁신의 空間적 확산에 대한 지금까지의 理論的 水準에 대한 綜合은 金炯國(1974) 참조

(17) 發展軸의 개념은 Pottier(1963), 都市回廊에 대한 연구는 Whebell(1969) 참조

- Berry, Brian(1967), *Geography of Market Centers and Retail Distribution*,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 Böventer, Edwin von(1969), "Determinants of Migration into West German Cities," *Papers, The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Vol. 23, 53-62.
- Boudeville, J.R.(1966), *Problems of Regional Economic Planning*, Glasgow: Edinburgh Univ. Press.
- Brown, M.(1966), *On the Theory and Measurement of Technological Change*,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Cameroon, Gordon(1970), "Growth Areas, Growth Centers and Regional Conversion," *Scottis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7, No. 1.
- Dahrendorf, Ralph(1959), *Class Conflict in Industrial Society*, Palo Alto: Stanford Univ. Press.
- Darwen, D.F.(1969), "Growth Poles and Growth Centers in Regional Planning-A Review," *Environment and Planning*, Vol. 1, 5-32.
- Friedmann, John(1966), *Regional Development Policy*, Cambridge: MIT Press.
- Friedmann, John(1969a), *A General Theory of Polarized Development*, School of Architecture and Urban Planning, Univ. of California, Los Angeles(mimeo), and also featured in N. Hansen(ed.), *Growth Centers i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New York: The Free Press, 1972. 160-203.
- Friedmann, John(1969b), "The Role of Cities in National Development,"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 12, No. 5.
- Friedmann, John(1973), *Urbanization, Planning and National Development*,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 Hall, Peter(1966), *World Cities*, New York: McGraw-Hill.
- Hanser, N.(1968), *French Regional Planning*, Bloomington: Indiana Univ. Press.
- Hanser, N.(1971), *Intermediate-Size Cities as Growth Centers: Applications for Kentucky, the Piedmont Crescent, the Ozarks, and Texas*, New York: Praeger Publishers.
- Hermaasen, Tormod(1972), "Development Poles and Development Centres in National and Regional Development: Elements of a Theoretical Framework," A. Kuklinski(ed.), *Growth Poles and Growth Centres in Regional Planning*, The Hague: Mouton, pp. 1-68.
- Hirschman, A.(1958), *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New Haven: Yale Univ. Press.
- Isard, Walter and E. Schoeler(1959), "Industrial Complex Analysis, Agglomeration Econ-

- omies and Regional Development," *Journal of Regional Science*, Vol. 1.
- Johnson, E.A.J.(1970), *The Organization of Space in the Developing Countries*,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 Kabaya, R.(1971), *Developing of Poor Regions: General Considerations and the Case of Japan*, Berkeley: Institute of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UCB. Working Paper No. 159.
- Keeble, D.E. 1967), "Models of Economic Development," R. Chorley and P. Haggett (eds.), *Socio-Economic Models in Geography*, London: Methuen and Co.
- Kuznets, Simon(1966), *Modern Economic Growth*, New Haven: Yale Univ. Press.
- Lasuen, J.R.(1969), "On Growth Pole," *Urban Studies*, Vol. 6, No. 2, 137-61.
- Myrdal, Gunnar(1957), *Rich Lands and Poor: The Road to World Prosperity*, New York: Harper and Bros.
- North, D.C.(965), "Location Theory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63.
- Owen, Wilfred(1968), *Distance and Development*,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 Perroux, Franois(1955), "Note sur la notion de pôle de croissance," (translated by L. Gates and A. McDermott) in D.L.McKee, et al(eds.), *Regional Economics*, New York: Free Pres, 1970.
- Pottier, P.(1963), "Axes de Communication et Developpement Economique," *Revue Economique*, Vol. 1
- Pred, A.(1966), *The Spatial Dynamics of U.S. Urban-Industrial Growth, 1800-1914*, Cambridge: MIT Press.
- Richardson, Harry(1969), *Regional Economics*, New York: Praeger.
- Richardson, Harry(1972), "Optimality in City Size, Systems of Cities and Urban Policy: A Sceptic c View," *Urban Studies*, Vol. 9, No. 1, 29-48.
- Rodwin, Lloyd(1970), *Nations and Cities*, Boston: Houghton Mifflin Co.
- Scitovsky, Tibor(1954), "Two-Concepts of External Economi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62, 143-151.
- Shacher, Arie 1971), "Israel's Development Towns: Evaluation of National Urbanization Policy," *Jurnal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Planners*, Vol. 37, No. 6, 362-372.
- Stucky, Barbara(1972), *Urbanization Policy in the Developed Countries*, School of Architecture

and Urban Planning, Univ. of California, Los Angeles(mimeo).

Thomas, Morgan(1972), "The Regional Problem, Structural Change, and Growth Pole Theory," A. Kuklinski(ed.), *Growth Poles and Growth Centres in Regional Planning*, The Hague: Mouton, 69-102.

Weitz, Raanan(1971), *From Peasant to Farmer*,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Whebel, C.F.J.(1969), "Corridors: A Theory of Urban Systems,"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Vol.59, No.1, 1-26.